

# 바간 로카테익판 사원 주실 동벽 벽화 연구: 미얀마의 불교적 제왕 이미지 구현

하 정 민\*

## 요약

---

미얀마 중부지역에 위치한 바간(Bagan)의 로카테익판(Loka-hteik-pan) 사원은 내부 전면이 화려하게 채색된 벽화로 장엄되어 있다. 12세기 전반에 제작된 이 벽화의 주제는 불교와 관련된 것으로, 석가모니 붓다의 일생 장면인 불전(佛傳), 붓다의 전생인 본생담(本生譚), 그리고 과거 28불이 표현되어 있다. 그중 주실 동벽 벽화는 도리천 설법과 관련된 불전 내용이 매우 상세히 묘사되어 주목된다. 화면 중앙부와 상단에는 수미산 정상부에 위치한 도리천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 붓다의 모습과 천상 세계의 장면이 표현되고, 그 아래에 붓다가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설법을 마치고 내려오는 모습이 표현된 것이다. 한편 화면 하단에는 연등불 수기 본생 장면과 팔리어 경전 <라타나 슛타(Ratana-sutta)>의 내용이 도해되어 있다.

로카테익판 사원 주실 동벽 벽화는 각 불전 및 본생담의 불교적 의미를 충실히 전달함과 동시에, 바간 왕의 불교적 제왕으로서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각 주제는 바간 시대 석각 명문을 통해 전해지는 바간의 신화와 전설에서 설하는 내용들, 즉 붓다를 왕과 동일시하여, 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이며 이 세상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고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붓다의 종교적, 초월적인 면을 강조하고, 동시에 왕과 붓다를 연결시킴으로써, 바간 왕실의 정치적

---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jungminha23@gmail.com

정당성 및 권위를 강조하려는 수사학적 표현이었다.

**주제어:** 미얀마, 버마, 바간, 로카테익판 사원, 불교적 제왕, 법왕, 도리천, 연등불 수기 본생, 짤시타(Kyansittha), 수미산, 칠금산, 제석천, 라타나 슷타(Ratana-sutta), 붓다밤사(Buddhavamsa)

---

## I. 머리말

미얀마 중부지역에 위치한 바간(Bagan)의 로카테익판(Loka-hteik-pan) 사원은 내부에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벽화로 장식되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그림 1). “로카테익판”은 미얀마어로 “세상의 정상을 장식한다(adorning the top of the world).”는 의미이다. 로카테익판 사원은 버마 고고학연구소(Archaeological Survey of Burma)에 의해 일찍이 알려져 있었으나,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58년 루스(G. H. Luce)와 바 신(Bohmu Ba Shin)에 의해 방문 조사가 이루어



〈그림 1〉 로카테익판(Loka-hteik-pan) 사원 전경. 12세기 전반 (사진: 주경미)

진 이후이다. 이때 사원의 벽화 주변에 고대 몬(Mon)어와 고대 버마어로 기록된 명문이 자세히 조사되었고, 바신의 지도하에 출판되었다(Ba Shin 1962). 바간은 미얀마 최초의 통일 왕국으로서 1044년 아노야타(Anawrahta, 재위 1044-1077) 왕에 의해 세워진 바간 왕조의 수도였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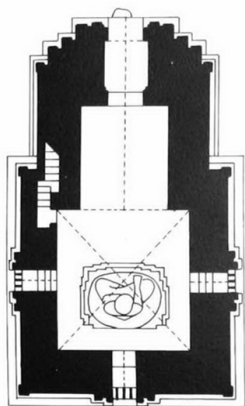
곳으로, 수많은 불교사원이 남아 있다.<sup>1)</sup> 로카테익판 사원은 이 중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원으로, 바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스투파 중 하나인 쉘산도(Shwesandaw) 스투파의 북쪽에 인접해 있다(그림 2). 그리고 그 외 바간 시대 중요한 대규모 건축물들과도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sup>2)</sup> 그 위치를 고려할 때 로카테익판 사원 역시 당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3)</sup> 1975년 이 지역을 강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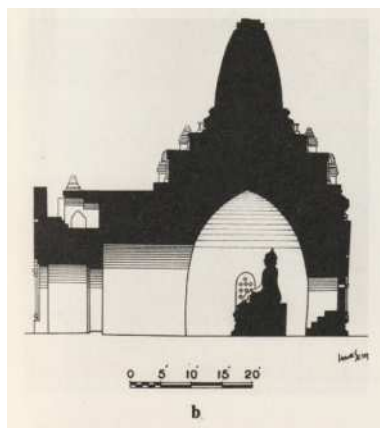
〈그림 2〉 쉘산도(Shwehsandaw) 스투파.  
바간 시대 1057년. 불발(佛髮) 사리  
안치 (사진: 강희정)

〈그림 3〉 로카테익판 사원 입구 정면.  
12세기 전반 (사진: 주경미)

- 1) 바간 지역 사원지들은 피에르 피샤에 의해 목록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총 2834기의 유적이 기록되었다(Pichard 1992-2001). 피샤의 목록에 따르면 로카테익판 사원은 Temple No. 1580이다. 한편, 허드슨은 2008년까지 남아 있는 바간 지역의 사원들을 3388기로 집계했다(Hudson 2008, 560). 바간 유적지는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바간 유적지에 대한 설명은 박장식 2019, 223-224; Hudson 2004 참조.
- 2) 로카테익판 사원은 쉘산도 스투파의 북쪽으로 약 150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쉘산도 스투파는 아노야타 왕 시기인 1057년경에 건립된 것이다. 그 외, 바간 성벽의 남동쪽 코너의 남쪽 성벽에서 약 400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짤시타(Kyansittha, 재위 약 1084-약 1112)왕 때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아난다(Ananda) 사원 및 바간 시대 가장 높은 사원인 텃빈뉴(That-byin-nyu, 1144년 건립, 높이 61 미터) 사원과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Ba Shin 1962, 1-2; Luce 1969, 384). 쉘산도 스투파를 중심으로 한 주변 사원군의 배치는 Pichard 1992-2001, Vol. 6, 106; 주경미·강민지 2016, 115-116 참조.
- 3) 다만 로카테익판 사원은 인접한 쉘산도 스투파와 비교해볼 때 그 규모가 아담해 보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쉘산도 스투파는 높이가 100 미터, 둘레 426 미터에 달하는데, 그에 인접한 로카테익판 사원은 길이가 약 16 미터, 폭이 약 10 미터의 규모이다(Ba Shin 1962, 1-2; Luce 1969, 384).



〈그림 4〉 로카테익판 사원  
평면도 (사진: Pichard  
1992-2001, Vol. 6, 198)



〈그림 5〉 로카테익판 사원 입면도  
(사진: Ba Shin 1962, pl. 5)

대지진으로 상부 구조가 일부 파괴되어, 주실 천장 부분의 벽화에 상당한 훼손을 입었지만, 그 외 다른 부분은 다행히 보존 상태가 우수한 편이어서, 바간의 불교 및 불교미술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사원 벽화는 아웅 짜잉과 보츠 피크롱의 책에서 전체 장면과 일부 세부를 볼 수 있다(Aung Kyaing 2010; Bautze-Picron 2003a, 45-115). 1975년 지진 이전 로카테익판 사원의 자세한 상태에 대해서는 1960년대에 출판된 바 신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Ba Shin 1962).

사원은 벽돌을 쌓아서 세운 전형적인 바간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입구는 북향으로 나 있고, 평면은 방형의 전실과 주실로 이루어져 있다(Luce 1969-1970, Vol. 1, 385; 주경미·강민지 2016, 117-118) (그림 3-5). 주실 내부는 5.61×5.72 미터의 거의 정방형의 공간이며, 주실 정벽(남벽)에는 향마촉지인 불좌상이 모셔져 있다(그림 6). 현재 볼 수 있는 불상은 1990년대 이후 보수된 것인데, 원래 봉안되어 있던 상 역시 향마촉지인의 수인을 결한 불좌상이었다고 전한다. 1960년대 말에 출판된 루스의 책에 실린 흑백 도판에 보이는 보존 역시 편단우견에 향마



〈그림 6〉 로카테익판 사원 주실 정벽(남벽) 전경 및 본존불 (사진: 위키미디어)

촉지인을 결한 모습이다(Luce 1969-1970, Vol. 3, pl. 352). 벽돌을 쌓은 후, 표면에 석회를 발랐으며, 사원 외벽에는 스투코로 부조 장식을 했다. 그리고 사원 내부에는 거의 전체 벽면에 채색 안료로 화려한 벽화를 그려 넣었다. 벽화의 주제는 석가모니 붓다의 일생 중 여러 중요한 사건인 불전(佛傳)과 붓다의 전생인 본생담(本生譚)이 주를 이루며, 과거불들의 묘사도 더해졌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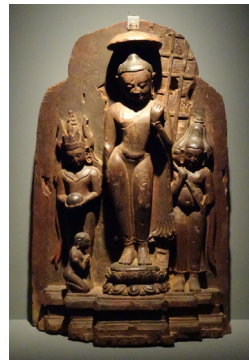
본존불 뒤쪽에는 석가모니 붓다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여덟 장면을 묘사한 팔상도(八相圖)가 도해되어 있다. 이러한 팔상의 배치는 인도의 팔라 시대에 유행한 전형적인 팔상 형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4) 로카테익판 사원의 전실 양 측벽과 주실 서벽에는 붓다의 본생도가 배치되었고, 주실 동벽과 남벽에는 불전도가, 그리고 주실의 북벽에는 과거 28불이 벽화로 표현되어 있다. 이 중 과거 28불은 팔리어본 경전인 『붓다밤사(Buddhavamsa)』에 등장하는 28분의 과거불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상좌부 불교미술에서는 과거 28불의 표현이 자주 보인다. Ba Shin 1962, 9-19; 주경미·강민지 2016, 122-139 참조. 『붓다밤사』는 남방불교(Theravada Buddhism, 소승불교)의 초기경전인 팔리 삼장(Pali Tipitaka) 중에서 경장(經藏)의 소부(小部)에 속한다. 팔리어본의 영역으로 Horner 1975 참조. 한역본으로는 『한역남전대장경(漢譯南傳大藏經)』 小部經典 권 19 『佛種姓經』 참조.

(Bautze-Picron 1999, 37-52; 고정은 2012, 325-350). 중앙 향마촉지인의 불상을 중심으로, 머리 위에 열반상(涅槃像)을 배치하고, 본존 좌우 벽면을 각각 3등분하여 나머지 여섯 장면을 양쪽으로 나누어 배치했다. 본존 향우측 아래부터 위 방향으로 석가모니 붓다의 탄생(誕生), 사위성(舍衛城) 신변(神變), 도리천(忉利天) 강하(降下), 그리고 본존 향좌측 아래부터 원숭이의 꿀 공양 장면인 원후봉밀(猿猴奉蜜), 초전법륜(初轉法輪), 술 취한 코끼리를 조복하는 취상조복(醉象調伏) 장면이 있다. 이 중 향우측 아래에서 세 번째 단에 묘사된 것이 도리천 강하 장면이다(그림 7).<sup>5)</sup> 붓다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도리천에 올라가 석 달 동안 설법을 한 후, 제석천이 만들어 내린 세 갈래 계단(혹은 사다리)을 통해 지상의 상카샤로 내려온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이 장면은 화면의 우측에 사선으로 표현된 계단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바간 시대에는 이와 같은 도리천 강하 장면을 돌에 새겨 부조로 표현한 예도 다수 전해진다. 그중 12세기 바간에서 제작된 한 예를 보면 로카텍입판 사원의 팔상 중 한 장면으로 묘사된 것과 유사한 화면



〈그림 7〉 로카텍입판 사원 주실 정벽의 팔상도 중 도리천 강하 장면 (사진: 위키미디어)



〈그림 8〉 도리천에서 내려오는 붓다 부조. 바간 시대, 12세기. 높이 71cm (사진: 하정민)

5) 도리천은 삼십삼천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33이라는 숫자를 인도어로 음역하였기 때문이다.

구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8). 일반적으로 인도 및 동남 아시아에서 이 주제를 표현할 때 가장 흔히 표현하는 방식이다.

흥미롭게도 이 도리천 강하 장면이 또 다른 벽면인 본존불 좌상의 우측벽(향좌측 벽, 즉 주실 동벽)의 거의 전체 면을 차지하며 다시 한 번,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담으며 묘사되었다(그림 9). 붓다가 도리천에서 내려오는 모습뿐만 아니라,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도리천에서 체류하며 설법하는 장면까지 표현된 것이다. 로카테익판 주실의 동벽에 보이는 도리천과 관련된 자세한 불전 내용을 표현한 것은 인도에서도, 그리고 동아시아 불교 미술에서도 매우 드문 것이다.



〈그림 9〉 로카테익판 사원 주실 동벽 벽화  
(사진: Aung Kyaing 2010, pl.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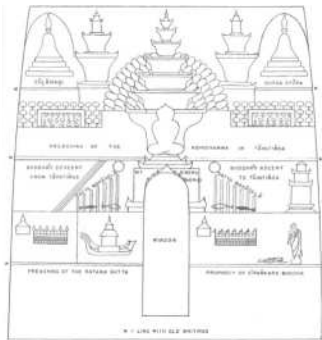
현전하는 유적 및 유물로 볼 때, 동남아시아에서도 미얀마 바간 시대 로카테익판 사원에서 거의 가장 먼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sup>6)</sup>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같은 동벽의 아랫단에 도리천 강하와 크게 관련이 없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로 연등불 수기 본생과 팔리어 경전 『라타나 슛타(Ratana-sutta)』의 도해이다(Luce 1969-1970, Vol 1, 387; Bautze-Picron 2003a, 58-59; Ba Shin 1962, 15-16, 119). 이 이야기들을 한 벽면에 함께 묘사한 것은 다

6) 이러한 장면은 12세기, 13세기로 각각 편년되는 로카테익판 사원과 Temple 1150에서 한 벽면의 전체를 차지하며 묘사되었다. 그리고 바간 이후에 세워진 사원에서는 좀 더 간략화 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재현되었다(Bautze-Picron 2008, 142).

른 사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구성이다.<sup>7)</sup> 이렇게 크게 관련 없는 주제를 조합해서 같은 벽면에 벽화로 표현했다는 사실은 이 벽화들이 어떠한 특별한 의도 하에 계획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한다. 본고는 이 벽화들을 아우르는 주제를 탐색하여 그 의도를 고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 동벽 벽화에 묘사된 장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도 및 동아시아와는 다른 바간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분석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표현된 내용과 연관된 바간의 전설적인 역사 기록들을 조사하여, 이 벽화가 불교의 가르침을 충실히 전달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불교적 제왕으로서의 왕의 면모를 붓다의 전기와 관련하여 표현한 것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로카테익판 사원 주실 동벽의 도리천 설법도



〈그림 10〉 로카테익판 사원 주실 동벽 벽화 도면 (사진: Ba Shin 1962, 13)

로카테익판 사원 주실의 동벽에는 중앙의 아치형 창문을 두고, 상하로 크게 네 단으로 나누어 여러 장면의 벽화가 배치되어 있다(그림 10).<sup>8)</sup> 각 장면 아래에는 고대 문어와 고대 버마어로 장면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여, 이 벽화 제작자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바를 확인할 수 있다(Ba Shin 1962, 12-16, 119, 144-145).

7) 『라타나 슛타』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가 monument 585에 한 점 있다. 이 경우 이 장면으로 비정하는 이유는 명문에 붓다가 베살리(Vesali)에 있을 때 그곳 왕과 백성들로부터 환영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Bautze-Picron 2003a, 59).

8) 주실에는 동, 남, 서면의 세 면에 벽감과 창문이 나 있다. 그런데 창문은 일반적인, 밖을 향해 크게 뚫린 형태가 아니라, 작은 십자형의 구멍이 여러 개 나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매우 적다(주경미·강민지 2016, 118).

중심 내러티브는 아래에서 두 번째 단의 우측 부분에서 시작된다. 붓다가 쉬라바스티(사위국, 舍衛國)에서 프라세나짓(Pasenadi, 波娑匿) 왕의 궁전을 떠나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장면이다(그림 11).



〈그림 11〉 그림 9의 세부. 붓다가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모습 (사진: Aung Kyaing 2010, pl. 20)

불전에 의하면 석가모니 붓다는 쉬라바스티에서 기적을 행한 후, 그의 어머니 마야부인에게 설법하기 위해 도리천으로 올라갔다(Bautze-Picron 2003a, 51-58; 이주형 1993). 벽화에는 궁전 안에 앉아 있는 프라세나짓 왕과 붓다를 향해 경배하고 있는 인물들이 보인다. 이에 답하는 붓다의 모습과 함께, 그 좌측에 계단을 향해 도리천으로 오르는 붓다의 모습이 한 차례 더 묘사되었다.

이 장면과 대칭을 이루는 창문 좌측 벽에는 붓다가 산개를 들고 있는 범천과 그 옆의 제석천을 비롯한 여러 신들의 호위를 받으며 도리천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그림 12).



〈그림 12〉 그림 9의 세부. 붓다가 도리천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 Aung Kyaing 2010, pl.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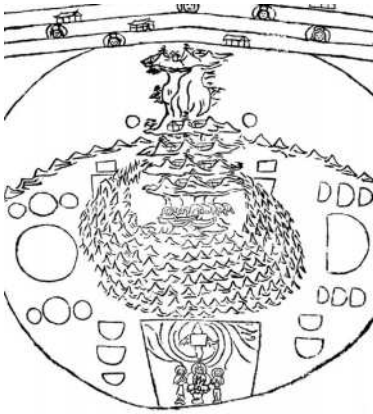
계단 아래에 붓다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리불(舍利弗), 그리고 빔비사라 왕과 그의 수행원들이 붓다를 환영하고 있다(Bautze-Picron 2003a, 56-57; Huntington 1986, 41-46).<sup>9)</sup>

9) 범천은 붓다의 좌측에 은(銀), 중앙 붓다는 각종 진귀한 보석, 우측에 제석천은 금(金)으로 제작된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문헌에 설한 바를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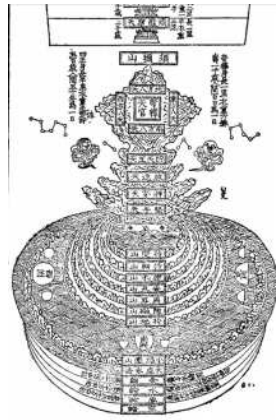
도리천으로 상승, 도리천에서 하강, 이 두 장면의 사이에는 수미산(須彌山)을 중심으로 하는 아홉 대산(大山)과 그 산들을 둘러싼 여덟 대해(大海), 즉 불교 세계관의 구산팔해(九山八海)의 표현이 보인다(그림 13). 이러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은 힌두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교에도 흡수되어, 『장아함경(長阿含經)』 제18권 『세기경(世紀經)』, 『기세경(起世經)』, 『기세인본경(起世因本經)』 등의 경전과 『구사론(俱舍論)』 등 부파불교의 논서들, 그리고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등 대승불교의 논서들에 설해지고 있다(菅沼晃, 田丸徳善 編 1989, 594-596; 定方晟 1993). 수미산은 고대 동아시아에서도 중요하게 시각적으로 표현되곤 했는데, 이때 수미산은 대체로 상단과 하단은 폭이 넓으나, 중단은 폭이 좁아지는 모래시계 형태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의 철위산(鐵圍山)을 포함한 여덟 겹의 산들이 수미산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표현은 6세기 중



〈그림 13〉 9의 세부. 수미산 세계도 (사진: Aung Kyaing 2010, pl. 16)



〈그림 14〉 일본 나라 도오다이지(東大寺) 대불의 연화좌에 나타난 수미산 세계도, 8세기 중엽



〈그림 15〉 중국 송대(宋代) 1269년, 지반(志磐)의 『불조통기(佛祖統紀)』 (T. no. 2035) 수미산 세계도

반 중국 돈황 제249굴의 천장 벽화에 나타난 수미산 표현과 8세기 중엽의 일본 나라 도오다이지(東大寺) 금동대불의 연화좌에 묘사된 수미산 세계도, 그리고 중국 송대(宋代) 1269년, 지반(志磐)의 『불조통기(佛祖統紀)』(T. no. 2035)에 수록된 수미산 세계도에 잘 나타나 있다(그림 14-15).

이러한 동아시아에서의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세계도와는 달리, 로카테익판 벽화에서는 구산팔해 중 철위산은 생략되고, 중앙의 수미산을 둘러싼 금으로 이루어진 일곱 산, 즉 칠금산(七金山)이 중앙에서 좌우로 갈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기둥과 같은 형태로 묘사되었다(Gerini 1976, diagram 1~2; Bautze-Picron 2008, 151, fig. 11.14) (그림 11-13). 아래 부분에 산과 산 사이의 대양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묘사되었고, 각 산의 정상부에는 궁전과 그 안에 앉아 있는 신들의 모습이 보인다.<sup>10)</sup> 이

10) 칠금산의 모티프는 바간에서 수미산 위의 도리천 설법도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로카테익판 사원 이외에, Temple 1150, 1170, 798(Pya-tha-nge), 684에서 볼 수 있다(Bautze-Picron 2008, 151-152). 한편, 팔상도 중 한 장면으로 <도리천 강하>

와 같이 중앙 수미산 좌우에 기둥과 같은 형태의 칠금산이 늘어선 모습으로 우주를 표현한 것은 바간 왕조 12세기에 조성된 로카테익판 사원의 벽화가 대표적이며, 현재로서는 가장 이른 예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sup>11)</sup> 이러한 수미산과 불교 세계의 도상은 이후 19세기까지 미얀마의 여러 왕조와 태국 등 다른 상좌부 불교를 신앙한 왕조의 미술에 영향을 미쳤다(Bautze-Picron 2008, 142; 김미소 2019).

수미산 정상부에는 바로 도리천이 위치하며, 도리천의 중앙에는 이천을 다스리는 제석천의 궁전인 선견성(善見城)이 있다. 석가모니 붓다는 바로 이곳에 앉아서 전법륜인의 수인을 취하고 마야부인과 제석천을 비롯한 여러 신들에게 설법한다(그림 13). 이 장면에 대한 명문은 고대 문어로 쓰여 있는데, 석가모니가 그의 어머니와 여러 신들에게 아비달마(Abhidhamma)를 설했다는 사실을 잘 기록하였다(Ba Shin 1962, 119).<sup>12)</sup> 위에는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두 개의 연지(蓮池)가 표현되어 있고, 그 아래에 앉은 여러 인물들이 붓다를 경배하며 그의 설법을 경청하고 있다. 벽화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마야부인의 모습을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다.

이 장면 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전각 안에 앉거나, 하늘을 날며 붓다를 경배하고 있는 신들의 좌우 양단에 스투파 두 기가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그림 9, 10, 13). 역시 고대 문어로 기록된 명문에 의하면, 좌측의 붉은 스투파는 출라마니 스투파(Culamani-thupa)이고, 우측의 백색 스투파는 두싸 스투파(Dussa-thupa)를 표현한

---

를 표현한 벽화에는 칠금산이 표현된 예가 거의 없다.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Let-Put-kan 사원의 한 패널에 예외적으로 등장할 뿐이다(Bautze-Picron 2003a, 57의 fig. 58).

11) 동남아시아에서 수미산이 사원의 벽면에 표현된 예는 12세기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앙코르 와트(Angkor Wat) 회랑의 유해교반(乳海攪拌) 부조와 바간 로카테익판 사원의 벽화가 대표적이다.

12) 불전에 의하면 석가모니 붓다는 석 달 동안 이곳에 머물며, 마야부인과 천들에게 아비달마를 설법하였다고 한다(Reynolds and Reynolds 1982, 223-224).

것이다(Ba Shin 1962, 119; Luce 1969-1970, Vol. 1, 387). 좌측의 출라마니 스투파는 천들의 왕, 제석천이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할 때 스스로 잘라낸 머리카락, 즉 불발(佛髮)을 가지고 와서, 도리천에 이 스투파를 세우며 안치한 것이다(Ba Shin 1962, 119와 114, fn. 1) (그림 16). 우측의 두샤 스투파는 붓다가 출가하며 벗어놓은, 싯다르타 태자가 궁전에서 착용하던 의복을 옮겨와서, 브라흐마들의 하늘(Brahmaloka, 梵世, 初禪天)에 세워 안치한 것이다(Reynolds and Reynolds 1982, 232-233, 252; Bode and Geiger ed. 1912, 117과 210) (그림 17).



〈그림 16〉 출라마니 스투파  
(Culamani-thupa), 불발(佛髮)  
사리 봉안 (사진: Aung Kyaing  
2010, pl. 15)



〈그림 17〉 두샤 스투파  
(Dussa-thupa), 석가모니  
출가시 의복 봉안 (사진: Aung  
Kyaing 2010, pl. 17)

이 중에 바간 왕조와 관련되어 특기할 만한 것은 바로 도리천상에 세워진 석가모니 붓다의 머리카락, 즉 불발 사리를 모신 출라마니 스투파를 모방하여, 바간 초기 11세기에 바간의 땅에 쉼산도 탑이 건립되었다는 점이다. 쉼산도 탑은 1057년에 아노야타 왕이 타톤(Thaton)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에서 가져왔다는 불발 사리를 모신 곳으로 쉼산도라는

명칭은 ‘황금빛 불발’이라는 뜻이다(Galloway 2016, 50; Luce 1969-1970, Vol. 1, 261) (그림 2).<sup>13)</sup> 도리천에 있는 출라마니 스투파를 모방하여 바간의 영토에 세움으로써, 바간의 영토는 도리천과 유사한 의미의 공간이 된다. 따라서 이 영토를 다스리는 바간의 왕은 도리천을 다스리는 제석천과 동격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카테익판 사원이 바로 이 쉐산도 스투파와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상 살펴본 내용이 로카테익판 동벽 벽화의 중심 주제이다. 붓다의 전기를 묘사한 팔상도의 일부로 자주 등장하는 도리천 강하 장면뿐 아니라,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장면과 수미산 위 도리천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포함하였다. 이는 인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긴 하지만, 이 모델의 기원은 인도의 아잔타 석굴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14)</sup>

기원후 5세기 후반에 제작된 아잔타 제17굴의 중심 성소에 들어가기 전의 공간, 즉 전실에 불전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중 좌측벽에 도리천과 관련된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Bautze- Picron 2008, 149; 福山泰子 2006; Dehejia 1991, 45-57) (그림 18). 삼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상단 벽화 부분에 박락이 심하지만, 그 윤곽을 선으로 옮긴 것을 보면 수미산 위 도리천궁에서 설법하는 붓다의 모습이 묘사되었다(福山泰子 2006, 1-18). 의좌 자세이고, 수인은 벽화의 박락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팔꿈치 위치로 볼 때 전법륜인을 결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붓다의 설법을 향 좌측 아래의 마야부인과, 향 우측 제석천을 비롯한 여러 신들이 경청하고 있다. 그 아래로 붓다가 범천과 제석천을 비롯한

13) 쉐산도 스투파에는 붓다의 정각 이후 만났던 상인 발리카(Bhallika)와 타푸사(Tapussa)가 받아들인 붓다의 머리카락 중 한 점이 모셔져 있다고 전해진다. 이 전승은 미얀마에서 19세기에 편찬된 『유리궁 연대기』(Glass Palace Chronicle)에 기록되어 있다(주경미·강민지 2016, 115).

14) 아잔타 석굴의 역사와 발전, 벽화, 조각, 건축 및 석굴 번호별 특징에 대해서는 Spink 2006, 2007, 2009 참조.



〈그림 18〉 인도 아잔타 석굴 제17굴 전실 좌측벽, 붓다의  
도리천 설법 및 강하 장면 (사진: 福山泰子 2006, 6)

여러 신들의 호위를 받으며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그리고 하단에는 역시 의좌 자세에 전법륜인을 취하고, 빔비사라 왕과 그의 수행원들에게 설법하는 장면이 있다. 아잔타 제17굴의 이러한 벽화의 도상은 로카테익판 주실 동벽에 그대로 다시 재현되었다. 현재 아잔타 석굴의 예한 점만 전해지지만, 현재 대부분 소실되어 전하지 않을 뿐, 과거에는 이와 같은 도해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것이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에 까지 전해진 것은 아닐까 추정해볼 수 있다(Bautze- Picron 2008, 149).

로카테익판 사원 주실의 동벽 벽화는 도리천에서의 석가모니 붓다

에 관한 인도의 시각적 모델과 그에 관한 경전적인 근거를 충실히 따르며, 천들이 거주하는 도리천의 세계를 훌륭히 묘사해냈다.<sup>15)</sup> 다만 아잔타 벽화에는 석가모니 붓다가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막대기 혹은 기둥같이 표현된 칠금산의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sup>16)</sup> 또 로카테익판 동벽 벽화 상부에 묘사된, 석가모니 출가 시 머리카락과 의복을 봉안한 두 기의 스투파 역시 아잔타 제17굴 벽화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두 기의 스투파 중 출라마니 스투파는 미얀마의 불교와 관련하여 볼 때, 인도로부터 옮겨온 붓다의 불발 사리를 모신 신성한 건축물로 매우 의미 깊은 것이었다. 이를 통해 미얀마 바간 시대 로카테익판 사원 벽화를 계획한 이들은 관련 불교 텍스트와 인도의 시각적인 선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거기에 바간의 종교적 믿음과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해나가며 주실 동벽 벽화의 중심 부분을 완성해냈음을 알 수 있다.

로카테익판 사원에서 수미산 위의 도리천궁을 표현한 것은 먼저 왕을 제석천과 연결시켰던 사고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얀마에서 제석천은 이상적인 군주상의 모습을 상징했다(Aung-Thwin 1985, 48-49). 도리천은 우주의 중심인 수미산의 정상에 위치하며, 수미산 아래에 사는 모든 신들을 관장했기 때문에, 인간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왕의 권위와 동일시될 수 있었다(Seviset and Jian Qun 2013, 450). 짤시따 왕(Kyanzitha, 재위 약 1084-약 1112)과 관련된 가장 이른 명문 중 하나인 쉐지곤(Shwezigon) 사원에 세워진 두 개의 방형 석주에 새겨진 명문에는 석가모니 붓다가

15) 로카테익판 이후의 여러 사원에 같은 주제가 표현된 벽화들은 인도의 예를 모델로 하지 않고, 또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채, 로카테익판 벽화를 모델로 하여 제작되었던 듯하다. 그 결과, 이미지들은 도식화되었고, 중요한 내러티브의 흐름을 잃었다. 유사한 경향이 바간 벽화의 본생담 표현에서도 관찰된다. 로카테익판 주실 동벽 벽화뿐만 아니라, 본생담 표현에서도 로카테익판 사원이 모범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로카테익판 사원이 미얀마 불교미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Bautze-Picron 2003a, 68-78).

16)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수미산 주변의 칠금산, 즉 불교 세계의 묘사는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12세기 경 바간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했다고 전해지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비슈누(Vishnu)라는 이름의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한 현자가 스리 크세트라(Sri Ksetra)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 후 천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다시 왕이 되어 불교를 받들 것이라는 것이다(Archaeological Survey of Burma 1920, 114).<sup>17)</sup> 그리고 짬시파 왕이 미래생에 도리천에서 제석천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여러 짬시파 왕과 관련된 명문들에서 반복된다(Moore 2004, 7).

또한 로카테익판 사원의 도리천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 붓다의 표현은 바간에 널리 퍼져 있던 붓다의 초월적인 면을 강조하고, 동시에 은연중에 왕을 붓다와 동격으로 위치시킴으로써 불교적 제왕으로서의 왕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짬시파 왕의 재위시인 1093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뻬에(Pyay)의 쉘산도(Shwesandaw) 사원에서 발견된 석조 명문이다(Pranke and Stadtner 2015, 11). 이 명문은 앞서 언급한 쉘지곤 사원의 명문의 내용과 유사한데,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다. 즉, 미래에 비슈누라는 현자가 스리 크세트라를 세울 것이고, 사망 후 천상(Brahmaloka)에 머물다가, 붓다의 열반으로부터 1630년이 지나 바간의 왕 짬시파로 다시 태어나 불교를 일으켜 세우는 법왕(a king of the Law)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Archaeological Survey of Burma 1920, 151-152; Aung-Thwin 1985, 48; 주경미 2019a, 239).

이 전설에 따르면 비슈누라는 인물이 다시 태어나서, 스리 크세트라 의 창건자가 되었고, 다시 천상에 올랐다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바간의 짬시파 왕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짬시파 왕은, 바간의 왕으로 태어나기 전에 천상에 머물러 있었고, 이어서 도리천에서 내려오는 석가모니 붓다처럼,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짬시파 왕이 되었다.

---

17) 쉘지곤 명문에는 천상이 'Brahmalok'(Brahmaloka를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

도리천에서 머물다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붓다를 표현한 로카테익판 사원 주실 동벽 벽화는 불전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천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붓다의 모습에 왕의 모습을 중첩시켜 보여주며, 불법을 수호하는 법왕의 이미지와 함께, 동남아시아의 전통 하에 뿌리 깊었던 “왕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여기는 사고를 은연중에 강화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autze-Picron 2008, 152, fn. 22).

### Ⅲ. 로카테익판 사원 주실 동벽 하단의 연등불 수기 본생도와 『라타나 슷타』 장면

로카테익판 사원 동벽의 가장 아랫단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도리천과 관련된 불전 장면, 즉 붓다가 도리천으로 올라감, 도리천에서 설법, 그리고 도리천에서의 내려오는 장면과는 크게 관계없는 연등불 수기 본생담과 팔리어 경전 『라타나 슷타(*Ratana-sutta*)』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Luce 1969-1970, Vol. 1, 387; Bautze-Picron 2003a, 58-59; Ba Shin, 1962, 15-16, 119; 주경미·강민지 2016, 128-129).

먼저 하단 우측에는 몸을 납작하게 엎드리고 머리를 풀어 앞의 진흙길을 메워서, 화면 우측에서 있는 붉은 대의를 입은 붓다, 즉 연등불이 진흙을 묻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해 주는 한 젊은이가 묘사되었다(그림 19). 이 장면은 바로 연등불 수기 본생담을 표현한 것이다. 연등불 수기 본생담은 북방, 남방의 여러 문헌에 전하고 있는데(Matsumura 2010, 120-121; Horner trans. 1975), 대표적인 북방 산스크리트어본 『마하바스투(*Mahāvastu*)』의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수메다라는 청년 수행자가 연등불에게 산화(散華) 공양을 하기 위해, 프라크리티라는 여인로부터 다섯 송이의 연꽃을 얻고, 후의 생에서 그녀를 아

내로 삼을 것을 약속한다. 이후 연등불을 마주한 수메다는 꽃을 허공에 던져 공양하고, 진흙에 머리를 풀어 연등불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한다. 그리하여 그는 연등불로부터 먼 미래 생에 석가모니로 태어나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Matsumura 2010, 120-123).



〈그림 19〉 그림 9의 세부. 연등불 수기 본생 장면  
(사진: Aung Kyaing 2010, pl. 21)

이러한 내용은 간다라 불교조각에 종종 자세히 묘사되어 나타난다(安田治樹 1984, 66-78; 고정은 2008, 122-135). 한 예로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 소장의 시크리 스투파 기단부에 묘사된 장면을 보면, 수메다가 프라크리티에게 꽃을 구해서, 연등불을 향해 던지고, 앞에 진흙을 보고, 연등불이 진흙을 묻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엎드려서 머리를 풀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20). 그러나, 남전 전승의 『니다나 까따(Nidana-Katha)』와 『붓다밤사(Buddhavamsa)』를 비롯한 팔리어 문헌들에는 여인과 헌화공양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18)</sup> 로카테익판 동벽에 나타난 연등불 수기 본생도에는 여인과 산

18) 마츠무라 준코(Matsumura Junko)는 남방 팔리어계 문헌 중에서 *Yasodharā Apadāna*, *Dhammaruci(ya) Apadāna*에는 여인과 산화 공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화 공양의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연등불은 붉은 색 가사를 입고, 그 아래에 석가모니의 전생인 수메다가 머리를 풀어헤쳐서 연등불의 옷에 더러운 흙이 묻지 않도록 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 20〉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 소장. 시크리 스투파 기단부에 조각된 연등불 수기 본생도, 쿠산왕조, 3-4세기 (사진: 하정민)

로카테익판 연등불 수기 본생 장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 중 하나는 수메다가 먼저 호랑이 가죽을 진흙 위에 깔고, 그 위에 머리를 풀어 놓은 점이다. 일부 간다라 조각에서는 수메다가 사슴 가죽을 아래에 깔고 있는 예가 발견되기도 한다.<sup>19)</sup> 남전 경전 중 『니다나 까따』와 북방 경전 중 『마하바스투』, 『사분율(四分律)』 권31, 『육도집경(六度集經)』 권8 등에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옷을 먼저 진흙 위에 깔고, 그 위에 머리를 풀어 덮는다는 기록이 있다(고정은 2008, 128). 이에 반해 『붓다 밤사』에는 단지 가죽이라고만 기록되어, 어느 동물의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Bodner 2009, 20, fn. 47). 로카테익판 벽화의 연등불 수기 본생

어 있음을 제시한다. 다만 이들 문헌은 북방계 문헌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Matsumura 2010, 111-120).

19) 사슴가죽으로 만든 옷을 진흙탕 위에 깔아놓았다고 하는 기록을 표상화한 작품의 예로 安田治樹는 붓카라 출토의 ‘연등불수기’ 본생도를 들었다(安田治樹 1984, 76, 도 4).

도에 사슴 가족이 아니라 호랑이 가족을 표현한 것은 인도 및 중앙아시아의 예들과 다른 것이며, 『붓다밤사』 계열의 텍스트가 그 시각적 재현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20)</sup>

연등불 수기 본생도는 다른 본생도가 모두 주실 서벽과 전실의 동서벽 전면에 배치되었던 것과는 달리, 본생도로서는 유일하게 동벽에 묘사되었다. 이를 통해 이 벽화를 계획한 이들에게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등불 수기 본생도는 싯다르타 태자의 전생인 수메다가 처음으로 과거불을 만나서 수기를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붓다가 되기 위한 길의 출발점으로 여겨져서, 불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sup>21)</sup> 이로 인해 이 장면이 석가모니의 전생을 표현한 본생도임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의 일생을 표현한 불전 장면들에 포함되어, 그중 가장 첫 장면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위와 같은 종교적 의미 외에, 연등불 수기 본생도의 특별한 의미를 짚시타 왕과 관련된 명문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Bautze-Picron 2008, 151). 앞에서 소개한 빼에(Pyay)의 쉘산도(Shwesandaw) 사원에서 발견된 명문과 관련된 것으로, 그 내용은 짚시타 왕의 탄생이 붓다에 의해서 직접 예언된 것이며, 스리 크세트라(Śrī Kṣetra)의 창건자가 짚시타 왕의 전생임을 전하는 것이었다. 과거불인 연등불이 석가모니 붓다의 전생인 수메다에게 이후 삶에서 성불할 것임을 예언한 바와 똑같이, 석가모니 붓다는 짚시타 왕의 전생인 비쉬누에게 후에 바간의 짚시타 왕

20) 이 경우 어떠한 이유로 호랑이 가족으로 표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붓다밤사』에 기술된 내용은 로카테익판 사원 벽화 중에서 연등불 수기 본생 장면 외에 과거 28불의 표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실 북벽에 과거 28불이 벽화로 표현되었다. 과거 28불의 표현은 상좌부 불교미술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이다. 앞의 각주 4 참조.

21) 연등불 수기 본생도는 불전을 주제로 하는 일련의 부조에서 첫 번째 장면을 장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다른 본생도와는 달리 본생담과 불전을 표현한 미술을 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여타 다른 본생도와는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연등불 수기 본생도의 성격에 관해서는 高田修 2004, 3-15; 宮治昭 1994, 15-32; 安田治樹 1984, 67-72; 고정은 2008, 136 참조.

이 되고, 다시 먼 후에 성불할 것을 예언한다. 여기서 수기를 준 연등불과 석가모니 붓다가 동일시되고, 수기를 받는 수메다와 비쉬누, 그리고 짚시타 왕이 동일시된 것이다. 석가모니가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아서 붓다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짚시타 왕은 전생의 공덕과 인연으로 석가모니불로부터 수기를 받았고, 이후 바간에서 불교적 제약으로 다시 탄생했으며, 후에 붓다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하단 좌측에는 팔리어 경전 『라타나 슷타』의 내용을 도해한 장면이 있다(그림 10과 그림 21). 내용은 부처님 당시 갠지스 강 북쪽의 도시 베살리(Vesali)에서 가뭄으로 인한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하여 온갖 악귀들의 소굴이 되자, 붓다가 그곳으로 가서 제자 아난다 존자로 하여금 발우에 물을 담아 거리마다 뿌리면서 『라타나 슷타』를 독송하게 하여, 모든 병과 악귀를 몰아냈다는 것이다(Bautze-Picron 2003a, 58-59).<sup>22)</sup> 현재 이 부분의 벽화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 어렵다. 대지진 이전에 이 벽화를 자세히 조사했던



〈그림 21〉 그림 9의 세부. 『라타나 슷타』(Ratana-sutta) 도해 장면 (사진: Aung Kyaing 2010, pl. 19)

22) 남방불교의 초기경전인 팔리 삼장 중에서 경장(經藏)의 소부(小部) 속의 『스탕니파타』(Suttanipāta, 경집經集)뿐만 아니라 『쿿다카파타』(Khuddakapāṭha, 소송경小誦經)에 나오며 17개의 계송(偈頌)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 신은, 우측에 갠지스 강에 떠 있는 배가 보이는데, 이 배를 타고 붓다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좌측 상단에 붉은 옷을 입은 붓다는 베살리에 도착해서 아난다에게 『라타나 스타』를 가르쳐서, 독송하게 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았다(Ba Shin 1962, 15-16).

『라타나 스타』 에피소드에서 붓다는 구제자, 구세주로서 건강과 안정을 가져오고, 무질서를 쫓아내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 장면은 짠시파 왕과 관련된 또 다른 예언을 떠오르게 한다. 쉘지곤(Shwezigon) 명문에 의하면, 짠시타의 재위 기간은 “모든 남성, 여성, 아이들 모두 아픔과 재난, 불운 없이 오래 살 것이며, 식량이 풍부하고, 행복을 누릴 것이다. 전 영토에 걸쳐서, 비가 120 차례 내릴 것이다. 대지의 모든 수액이 잘 나올 것이며, 모든 헛간과 곳간이 모두 물건과 곡물들로 가득찰 것이다”라고 했다(Aung-Thwin 1985, 60; Archaeological Survey of Burma 1920, 126-127). 『라타나 스타』에서 붓다처럼, 왕은 세상을 재난이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한, 매우 평화로운 곳으로 만든다. 『라타나 스타』 장면은 미얀마에서 불전 장면을 벽화나 조각으로 표현할 때 자주 표현되는 인기 있었던 주제는 아니었다(Bautze-Picron 2003a, 59).<sup>23)</sup> 그런 상황에 이 장면을 로카테익판 사원의 동벽 하단에 수미산 위 도리천궁에 서의 석가모니 붓다의 설법 바로 아래에, 그 주제를 명문에 명확히 밝히고 내용을 자세히 묘사한 것은 매우 의도된 것으로 보이며,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붓다의 종교적인 힘과 속성들을 왕에게 중첩시켜 표현함으로써 불교적 제왕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붓다가 지상에 내린 바들과 같이, 바간의 왕 또한 그의 영토에 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Bautze-Picron 2008, 151).<sup>24)</sup>

23) 『라타나 스타』 장면은 로카테익판 동벽 벽화 외에, monument 585에 같은 주제가 표현된 것으로 보이는 예가 한 점 더 있을 뿐이다. 이 경우 벽화의 표현된 이미지는 로카테익판의 해당 주제를 표현한 벽화와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라타나 스타』를 도해한 것으로 비정하는 이유는 명문에 붓다가 베살리(Vesali)에 있을 때 그곳 왕과 백성들로부터 환영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 IV. 맺음말: 로카테익판 사원 주실 동벽 벽화의 불교적 제왕 이미지 구현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로카테익판 사원 주실 동벽에는 도리천 설법도와 연등불 수기 본생, 그리고 『라타나 슛타』라는 불교적인 의미상 크게 관련 없어 보이는 주제들이 함께 벽화로 표현되었다. 각 장면들은 모두 불전도 및 본생도로서 특정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벽화들은 불교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만은 아닌 듯하다. 세 장면을 결합하여 제시함으로써 로카테익판 주실 동벽 벽화는 바간 왕과 관련된 개념, 즉 불교적 제왕으로서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 벽화는 석각 명문을 통해 전해지는 바간의 신화와 전설에서 설하는 내용들, 즉 붓다를 왕과 동일시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며, 붓다와 같이 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이며 이 세상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고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바간의 왕이 붓다가 가진 권위 및 속성을 그대로 지니는 존재로 여기게 하여, 왕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미얀마 불교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 문제는 이 로카테익판 사원 벽화에 나타난 불교적 제왕 이미지의 구현을 계획한 주체와 그 수혜자

24) 한편 베살리(Vesali)는 인도의 한 지명으로 석가모니 붓다가 재세 시 방문했던 곳일 뿐 아니라, 짚시파 왕과 관련된 미얀마의 한 지명이기도 해서 주목된다. 짚시파 왕의 혈통에 대해서 이설이 많은데, 『유리궁연대기』에 의하면 짚시파는 아노야타 왕과 라카인 지역 베살리(Vesali) 국의 공주 판차칼라니(Pancakalyani)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Pe] Maung Tin and Luce trans. 1960, 65-67; 주경미 2019b, 42. 불교 미술로 거의 표현되지 않던 경전인 『라타나 슛타』의 내용이 로카테익판 사원에 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지 앞으로 더 연구해 볼 만한 문제이다. 위의 본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베살리에서 붓다가 행한 것처럼 짚시파 왕도 그의 영토에 평화와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클 수 있다. 혹은 그 경전의 주된 배경으로 등장하는 베살리라는 지명이 짚시파 왕과 관련된 지명이기도 해서일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는 누구일까 하는 점이다. 미얀마 불교미술 전문가 보츠 피크롱 교수는 한 연구에서, 로카테익판 주실 동벽 벽화의 수미산 설법도의 내용이 짠시타 왕과 관련된 석각 명문의 내용과 상당한 연관이 있음을 지적하며, 로카테익판 사원이 짠시타 왕의 재위기간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Bautze-Picron 2003a, 167-169; Bautze-Picron 2008, 152).<sup>25)</su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카테익판 사원 주실 동벽 벽화의 내용이 짠시타 왕과 관련된 전설 및 역사와 관계가 깊으므로, 이 사원 벽화가 짠시타 왕의 재위기에 왕 그 자신, 혹은 그의 가족이나 측근에 의해, 짠시타 왕을 위해서 설계된 것이라면 이 글의 논지 전개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듯하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로카테익판 사원의 건립 연대를 특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로카테익판 사원 내에는 사원 내부에 표현된 벽화의 주제와 관련된 명문이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사원의 건립연대와 발원자에 대한 정보는 전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사원 전실과 주실 벽화에 쓰여진 고대 문자의 서체와 철자에 의해서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사원 내부의 명문은 고대 버마어와 몬어로 기록되었는데, 몬어의 철자가 짠시타 왕 시기와 그의 아들 라자쿠마르(Rajakumar)의 시기의 명문과 거의 같아서, 몬어의 서체와 철자만으로 보면, 이 사원은 짠시타 왕의 시기인 1100년경까지 올려볼 수 있다. 문제는 고대 버마어 명문이다. 로카테익판 사원 내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버마어 중 매우 많은 양의 명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명문이 시기가 약간 내려가는 것으로 보인다. 두 언어로 이루어진 명문에 이러한 시기적인 차이가 엿보이지만, 로카테익판 사원 내부의 명문들은 모두 큰 시기 차이 없이,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대략 12세기 전반에서 중엽 무렵,

25) 보츠 피크롱 교수는 로카테익판 사원 벽화의 주제뿐만 아니라, 정교한 표현 양식 면에서 보아도 이 사원이 12세기 전반 짠시타의 재위 기간 중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즉 짬시파(Kyanzitha, 재위 약 1084-약 1112) 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그리고 늦어도 1125년 이전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Luce 1969-1970, Vol. 1, 384-385).<sup>26)</sup> 발원자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건축물과 벽화의 예술적 완성도를 고려하면 바간 왕실의 일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Ba Shin 1962, 2).

현재 로카테익판 사원이 짬시파 왕 혹은 그의 측근에 의해서 짬시파 왕의 재위기간에, 그의 불교적 제왕으로서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다고 주장할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 이 사원의 건립 연대와 명문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진다면 로카테익판 사원 벽화를 계획한 이들과 그들의 의도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로카테익판 사원이 반드시 짬시파 왕대에 건립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원 동벽의 벽화는 12세기 전반에 붓다의 종교적인 의미와 왕을 연결시킴으로써, 바간 왕실의 정치적 정당성 및 권위를 강조하려는 매우 강력한 수사학적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도와 스리랑카의 불교문화를 받아들이며, 동시에 독특한 신화와 전설을 발전시켜 나가며 불교를 정치적으로 잘 활용했던 미얀마의 불교 및 불교미술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투 고 일: 2020년 1월 12일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 2020년 2월 16일

---

26) Luce는 이 사원을 “Temples of the Transition(1113-1174 A.D.), and Miscellaneous Ruins” 장에서 다루고 있다.

## 참고문헌

- 고정은. 2008. “인도 연등불수기 본생도 연구.” 『코기토』 64: 122-135.
- \_\_\_\_\_. 2012. “동남아시아 불전미술의 성립과 도상특징.” 『강좌미술사』 38: 325-350.
- 김미소. 2019. “미얀마 쾰바웅조 말기 빠러바익의 도상적 특징과 기능: 수미산도가 그려진 화첩을 중심으로.” 부산박물관·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 논문집. 『미얀마의 불교미술』. 부산: 부산박물관.
- 김성원. 2002. 『미얀마의 이해』.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5. 『미얀마의 종교와 사회』.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_\_\_\_\_. 2018. 『미얀마 왕조사』.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박장식. 2019. “전통시대 미얀마의 역사.” 부산박물관·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 논문집. 『미얀마의 불교미술』. 부산: 부산박물관.
- 박장식 편. 2015. 『동남아 문화 이야기』. 서울: 솔과학.
- 부산박물관. 2019. 『미얀마의 불교미술』. 부산: 부산박물관.
- 양승윤 외. 2005. 『미얀마』.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이와모도 유다가 외. 홍사성 역. 1989. 『동남아 불교사 — 상좌부 불교의 전개와 현황』. 부천: 반야샘.
- 이주형. 1993. “불전의 ‘사위성신변’ 설화: 미술과 문헌자료의 검토.” 『진단학보』 76: 143-207.
- 주경미. 2019a. “미얀마의 불교적 제왕 전통과 불교미술.” 부산박물관·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 논문집. 『미얀마의 불교미술』. 부산: 부산박물관.
- \_\_\_\_\_. 2019b. “바간 시대 아난다 사원의 창건과 양식적 특징.” 부산박물관·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 논문집. 『미얀마의 불교미술』. 부산: 부산박물관.

주경미·강민지. 2016. “미얀마 버강시대 로카테익판 사원 연구.” 『불교미술사학』 21: 113-148.

차장섭. 2013. 『미얀마 —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나다』. 서울: 역사공간.

최병욱. 2015. 『동남아시아사 — 전통시대』 개정판. 서울: 산인.

피오나 켈로그, 박장식 외 공역. 2012. 『동남아의 예술세계』. 서울: 술과학.

高田修. 2004. 『仏教の伝説と美術』. 東京: 講談社.

菅沼晃, 田丸徳善 編. 1989. 『佛教文化事典』. 東京: 佼成出版社.

宮治昭. 1994. “インドの仏伝美術の三類型.” 『仏教芸術』 217: 15-32.

福山泰子. 2006. “アジャンター石窟における「従三十三天降下」図について.” 『密教図像』 25: 1-18.

安田治樹. 1984. “ガンダーラの燃燈仏授記本生図.” 『仏教芸術』 157: 66-78.

定方晟. 1993. 『須弥山と極楽 - 仏教の宇宙観-』. 東京: 講談社.

秋山光文. 2001. “ミヤンマの美術.” 肥塚隆 編. 『世界美術大全集 東洋編』 第12卷 東南アジア』. 東京: 小學館.

Archaeological Survey of Burma. 1919. Taw Sein Ko and Charles Duroiselle eds. *Epigraphia Birmanica: Being Lithic and other Inscriptions of Burma* 1(1). Rangoon: Superintendent Government Printing Office.

\_\_\_\_\_. 1920. Charles Duroiselle ed. *Epigraphia Birmanica: Being Lithic and other Inscriptions of Burma* 1(1). Rangoon: Superintendent, Government Printing and Stationery, Union of Burma(Reprint 1960).

Aung Kyaing, U. 2010. *Murals in Bagan: Abeyadana and Lawka Htiak Pan*. Yangon: ASEAN Committee on Culture and Information.

Aung-Thwin, Michael. 1985. “Political Ideology: Conceptions of Kingship.” *Pagan: The Origins of Modern Burm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Ba Shin. 1962. *Lokahteikpan - Early Burmese Culture in a Pagan Temple*. Rangoon: Burma Historical Commission, Ministry of Union Culture, Revolutionary Govt., Union of Burma.
- Bautze-Picron, Claudine. 1999. "Between India and Burma: the "andagu" stelae." Donald M. Stadtner ed. *The Art of Burma, New Studies*. Mumbai: Marg Publications : 37-52.
- \_\_\_\_\_. 2003a. *The Buddhist Murals of Bagan*. Bangkok: Orchid Press.
- \_\_\_\_\_. 2003b. "The Five Dreams of the Bodhisatta in the Murals of Pagan." *Berliner Indologische Studien* 15/16/17: 341-368.
- \_\_\_\_\_. 2008. "The Sermon on Mount Meru in the Murals of Pagan." Peter Sharrock, Ian C. Glover and Elizabeth A. Bacus eds. *Interpreting Southeast Asia's Past: Monument, Image and Text*. Singapore: NUS Press.
- \_\_\_\_\_. 2009. "The Presence of the Five Dreams of the Bodhisatta in the Murals of Pagan." Claudine Bautze-Picron ed. *The Indian Night, Dream and Sleep in Indian Culture*. New Delhi: Rupa and Co.
- \_\_\_\_\_. 2011. "The Murals of Temple 1077 in Pagan (Burma) and Their Innovative Features." 1-25. See: <https://hal.archives-ouvertes.fr/hal-00638395>
- Bode, Mabel Haynes and Wilhelm Geiger eds. 1912. *Mahāvamsa: the Great Chronicle of Ceylon*. London: Pub. for the Pali Text Society by Oxford University Press.
- Bodner, Carolina. 2009. "Depictions of the Narrative of the Buddha Dipankara and the Hermit Sumedha in the Art of Burma/Myanmar." Matser Thesis.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 Cowell, E. B. ED. 1897. *The Jataka or Stories of the Buddha's Former Births* 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hejia, Vidya. 1991. "Narrative Modes in Ajanta Cave 17: A Preliminary Study." *South Asian Studies* 7: 45-57.
- Fraser-Lu, Sylvia and Donald M. Stadtner eds. 2015. *Buddhist Art of Myanmar*. New York: Asia Society Museum and Yale University Press.
- Galloway, Charlotte. 2006. "Burmese Buddhist Imagery of the Early Bagan Period (1044-1113)." Ph. D. dissertation.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_\_\_\_\_. 2013. "Buddhist Narrative Imagery during the Eleventh Century at Pagan, Burma: Reviewing Origins and Purpose." Alexandra Green ed. *Rethinking Visual Narratives From Asia: Intercultur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159-174.
- \_\_\_\_\_. 2016. "Bagan: the Living Legacy of Kings," Stephen A. Murphy ed. *Cities and Kings: Ancient Treasures from Myanmar*. Singapore: Asian Civilisations Museum.
- Gerini, G. E. 1976. *Chūlākantamaégala, The Tonsure Ceremony as Performed in Siam* (Reprint). Bangkok: The Siam Society.
- Green, Alexandra. 2018. *Buddhist Visual Cultures, Rhetoric, and Narrative in Late Burmese Wall Painting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Green, Alexandra and Richard T. Blurton eds. 2002. *Burma: Art and Archaeology*. London: British Museum Press.
- Guy, John ed. 2014. *Lost Kingdoms: Hindu Buddhist Sculpture of Early Southeast Asia*.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Horner, Isaline Blew trans. 1975. *The Minor Anthologies of the Pali Canon: Part III, Chronicle of the Buddhas and Basket of Conduct (Cariyapitaka)*. London: Pali Text Society.

- Hudson, Bob. 2004. "The Origins of Bagan: The Archaeological Landscape of Upper Burma to AD 1300."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ydney.
- \_\_\_\_\_. 2008. "Restoration and Reconstruction of Monuments in Bagan (Pagan), Myanmar (Burma)." *World Archaeology* 40(4): 553-571.
- Huntington, John C. 1986. "Sowing the Seeds of the Lotus: A Journey to the Great Pilgrimage Sites of Buddhism, Part III." *Orientalism* 17(3): 41-46.
- Kerlogue, Fiona. 2004. *Arts of Southeast Asia*. London: Thames & Hudson.
- Lu Pe Win, U. 1966. "The Jātakas in Burma." *Artibus Asiae Supplementum* 23.
- Luce, Gordon H. 1956. "The 550 Jātakas in Old Burma." *Artibus Asiae* 19-3/4.
- \_\_\_\_\_. 1969-1970. *Old Burma - Early Pagan* 3.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 Matsumura, Junko. 2010. "The Sumedhakathā in Pāli Literature and Its Relation to the Northern Buddhist Textual Traditi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College for Postgraduate Buddhist Studies* 國際佛教學大學院 大學研究紀要 14: 101-133.
- Moore, Elizabeth. 2004. "Ancient Knowledge and the Use of Landscape, Walled Settlements in Lower Myanmar." *Traditions of Knowledge in Southeast Asia I*. Proceedings of the Traditions of Knowledge in Southeast Asia Conference 17-19 December 2003. Myanmar Historical Commission, Ministry of Education.
- Murphy, Stephen A. ed. 2016. *Cities and Kings: Ancient Treasures from Myanmar*. Singapore: Asian Civilisations Museum.
- [Pe] Maung Tin and Luce, G. H. trans. 1960. *The Glass Palace Chronicle of the Kings of Burma*. Rangoon: Rangoon University Press.

- Pichard, Pierre. *Inventory of Monuments of Pagan* 8. Paris: UNESCO, 1992-2001.
- Pranke, Patrick and Donald M. Stadtner. 2015. "Foundation Myths of Myanmar." Fraser-Lu, Sylvia and Donald M. Stadtner eds. in *Buddhist Art of Myanmar*. New York: Asia Society Museum and Yale University Press.
- Reynolds F. E. and M. B. Reynolds. 1982. *Three Worlds According to King Ruang, A Thai Buddhist Cosmology*. Berkeley Buddhist Studies Series 4. Berkeley: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 Seviset, Somchai and Lin Jian Qun. 2013. "Cosmology and the traditional Thai Design of the Royal Throne of Rattanakosin Royal Hall." *Applied Mechanics and Materials* 409-410: 442-453.
- Spink, Walter M. 2006. *Ajanta: History and Development* 1. *The End of the Golden Age*. Leiden; Boston: Brill.
- \_\_\_\_\_. 2007. *Ajanta: History and Development* 5. *The End of the Golden Age*. Leiden; Boston: Brill.
- \_\_\_\_\_. 2009. *Ajanta: History and Development* 4. *Painting, Sculpture, Architecture - Year by Year*. Leiden; Boston: Brill.
- Stadtner, Donald M. 2015. "Ancient Pagan — a Plain of Merit." Fraser-Lu, Sylvia and Donald M. Stadtner eds. *Buddhist Art of Myanmar*. New York: Asia Society Museum and Yale University Press.

Abstract

---

## Murals on the Eastern Wall of the Lokahteikpan Temple in Bagan: Imaging a King of the Law in Myanmar

HA, Jungm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ituated in Bagan, an ancient city in central Myanmar (Burma), the Lokahteikpan temple is well-known for its multicolored murals on the inner walls. The main theme of the murals, which appears to have been created in the early 12th century, is related to Buddhism, displaying various scenes of the historical Buddha's life, the stories of previous lives of the Buddha, called Jataka tales, and twenty-eight Buddhas. It is worth noting that detailed scenes on the sermon on Mount Meru from the life story of the Buddha were depicted at murals on the eastern wall of the temple. At the center and top of the eastern wall, Sakyamuni Buddha preaching on Mt. Meru at Tavatimsa (Trāyastriṃśa) and the heavenly world were depicted, while below the Buddha is ascending upward to Tavatimsa and descends after the sermon. Illustrated at the bottom of the wall are scenes from the *dīpaṅkara jātaka* and the *Ratana-sutta*, a Buddhist discourse found in the Pali Canon.

It seems that the murals on the eastern wall of the temple faithfully convey the Buddhist stories and teachings in the scenes, while they were

intended to strengthen the significance of the Bagan king as king of the Law. Each scene visualizes the idea that a Bagan king is a being who has returned to earth from heaven and will bring prosperity and peace to the world by identifying the king with the Buddha. The idea is indicated in myths and legends from the Bagan period, which have been passed down through several stone inscriptions. The murals on the eastern wall at the Lokahteikpan temple is a visual rhetoric of the political legitimacy and authority of the Bagan king, and it was implemented by exhibiting religious and transcendent aspects of the Buddha and connecting the king to the Buddha.

**Keywords:** Myanmar, Burma, Bagan or Pagan, Lokahteikpan temple, dhammarāja or devarāja, king of the Law, Tavatimsa or Trāyastriṃśa, dīpaṅkara jātaka, Kyansittha, Mount Meru or Sumeru, Indra, Sakka or Śakra, seven golden mountain ranges, *Ratana-sutta*, *Buddhavaṃsa*